



**GS건설-서울시교육청, '즐거운 돌봄교실' 만든다**  
 GS건설은 10일 서울 중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GS건설 허운홍 대표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초록우산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 외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GS건설 즐거운 돌봄교실'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S건설 허운홍 대표(가운데)와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왼쪽 첫번째)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GS건설



**롯데, '올 패밀리데이' 개최... 700여명 한자리**  
 롯데는 계열사 임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2024 롯데 올 패밀리데이'를 개최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과 가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임직원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로, 임직원들은 자녀에게 본인의 일터인 롯데를 소개하고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롯데



**우아한형제들, '장보기오픈런' 성료... 2000명 질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2024 장보기오픈런(장보기오픈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장보기오픈런에는 2000여명이 참가해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성내천 일대 5km를 걸거나 달렸다. /우아한형제들



**유카로오토모빌-울산 HD FC, 4년 연속 스폰서십**  
 아우디 공식딜러 유카로오토모빌은 한국프로축구 K리그 1 울산 HD FC와 4년 연속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호중 유카로오토모빌 회장(왼쪽)과 울산 HD FC 김광국 대표이사가 1일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스폰서십 협약식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카로오토모빌

**승실대 '에너지정책융합대학원' 사업 선정**

승실대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에너지정책융합대학원' 사업에 단독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승실대는 이번 사업에 처음으로 단독선정됐으며, 5월부터 오는 2028년까지 4년 8개월간 46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승실대는 사업을 통해 경제학과와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공대 5개 학과가 연합해 에너지정책기술융합학과를 설립한다. /이현진 기자 lhj@



**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노년이 되면 노인복지관 옆에 살아야겠어.” 오래간만에 만난 옛 친구가 불쑥 던진 말이다. 구수를 넘긴 친구의 아버지가 혼자 살아가면서도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지키고 있다며 한 말이다. 그 비밀은 뭘까? 친구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전남 여수시가 노인복지관을 확장한 것에서 그 비결을 찾았다. 독거노인들이 매일 같이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버지의 건강 비결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도시에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자리가 풍부하고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더 높은 임금과 다양한

**췌! 우리 도시는 공부 중**

직업 선택지가 도시를 매력적인 곳으로 만든다. 대중교통, 의료서비스, 쇼핑시설은 불편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의 인프라다. 박물관, 극장, 콘서트홀을 통한 다양한 문화활동이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이렇게 도시에 사는 이유를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 도시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교육 인프라와 학습기회의 접근성이다. 우리나라엔 226개에 이르는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 형태의 도시를 구성하고 있다.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학습도시를 선언하고,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교육과 학습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 교육부가 지정하여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평생학습도시의 숫자만 198개(2024년 기준)에 이르니 전국의 87.6%가 평생학습도시다.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자아실

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restructuring) 운동'으로 정의된다. 서울 은평구는 도시의 '숨은고수'를 발굴한 지 20년이 넘었다. 다양한 재능과 지혜를 가진 시민들(숨은고수)이 형식, 내용,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열린 배움터(숨은고수교실)를 운영하고 있다. 서대문구에 가면 '세로골목'이 한창 열공 중이다. 아파트단지의 엘리베이터(세로골목)를 매개로 5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이면 시니어를 위한 한글교실부터 힐링플라워 클래스까지 수많은 교실이 만들어진다.

평생학습도시는 '동시에 지역사회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지역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이기도 하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방방곡곡 공용공간들을 '학습등대'로 재구조화했다. 지역 내에만 120개의 학습등대가 있어 1분 내에 등교가 가능하다. 수원시의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우는 '누구나학교'는 지하철역으로 연결된다. 대전 대덕구는 주민이 원하는 학습을 신청하면, 강사가 대덕구 어디든 찾아가는 무료 학습 배달 서비스를 한다. 학습이 자장면처럼 배달된다고 도시의 특색을 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는 '췌! 공부 중'이다.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현대차, 산불피해지 산림 복원 추진**

트리플래닛 등 업무협약 체결 “친환경 사회 위한 노력 지속”  
 현대자동차가 정부 기관 및 소셜벤처와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 사회 공헌 사업에 나선다. 현대차는 1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최두하 현대차 경영전략사업부장,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트리플래닛과 '지속가능한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훼손된 산림 복원을 통한 산림생태계의 건전성 회복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산림청 산하 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나무 심기 전문 소셜벤처 '트리플래닛'과 함께 이번 협약을 추진하

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는 향후 5년간 관련 기관·기업과 함께 국내 최대 산불피해지인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복원을 추진하고, 친환경 숲을 신규 조성한다. 새롭게 조성되는 숲은 현대차가 고객과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해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대표 친환경 CSV 활동인 '아이오니 포레스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국내 최대 산불 피해지 중심의 산림 복원을 추진하고자 했다”며 “현대차는 앞으로도 글로벌 CSV 이니셔티브 '현대 컨티뉴' 아래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환경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왼쪽부터) 류얼 에스오일 사장,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스오일 CEO,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장진수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전우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본부장이 '해경영웅지킴이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스오일

**에스오일, 해경영웅 3.2억 후원**

**'해경영웅지킴이' 활동 지속 "튼튼한 후원자로 함께 할 것"**  
 에스오일이 해양경찰들의 의지를 북돋기 위해 후원금을 기부했다. 에스오일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서울 마포 본사에서 해경영웅지킴이 후원금으로 3억 2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후원금은 공상해경 치료비, 순직 해경유자녀 학자금, 해경영웅 시상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알 히즈아지 에스오일 CEO는 “어려운 해상 상황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조하는 해양경찰들

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에스오일은 앞으로도 해양경찰의 든든한 후원자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에스오일은 조난 선박구조, 해양오염방지, 불법조업 어선단속 등 최일선 현장에서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해양경찰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지난 2013년 해양경찰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해경영웅지킴이' 협약을 맺었다. 이후 해경 관련 프로그램별 후원금 전달식과 해경영웅 시상식을 지속해서 개최해 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효성그룹, 달성습지 관광 활성화 나서**

제 10회 생물다양성 축제 후원  
 효성그룹이 효성티앤씨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대구의 달성습지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효성은 대구시 달성군에서 개최된 '제 10회 달성습지 생물다양성 축제'를 후원했다고 10일 밝혔다. 효성은 올해 초 대구 달성군에 있는 달성습지를 생물다양성 보전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하고 환경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환경축제는 달성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물다양성 탐사, 생태 릴레이 투어, 천체관측, 보물찾기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멸종위기 보호종인 맹꽁이가 그려진 양말이 기념품으로 제공됐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효성은 앞으로도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업의 책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 인사**
- ◆경찰청 ◇치안정감 승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김봉식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이호영 △경기북부경찰청장 김도형
  - 부음**
  - ▲이준일씨 별세, 이준호(팜젠사이언스 마케팅본부장)씨 부친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례식장 8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서울시립송화원
  - ▲우영희(향년 87세)씨 별세, 전대홍씨 부인상, 전창원(빙그레 대표이사)·전양숙씨 모친상, 김정우씨 장모상, 정유숙씨 시모상 = 9일, 연세대학교 신촌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1일 오전 02-2227-7572
  - ▲손말연씨 별세, 임장렬·상호·해정·선숙씨 모친상, 임지훈씨(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 차장)·조모상, 백영미씨(뉴시스 신성상산업부 기자)·시조모상 = 10일 대구전문장례식장 105호, 발인 12일 오전 7시 053-961-4444
  - ▲김두진씨 별세, 김형준(한국수출입은행 경영기획본부장)·숙희·숙찬·민정·연희씨 부친상, 윤도희(에코프로 고문)·박태진(사업)·안병주(기아자동차)씨 장인상, 김희선씨 시부상 = 9일, 경북 영주시 명품장례문화원 특2호, 발인 11일 오전 7시 10분. 054-634-4444